

家政教科 學習을 통한 男中生の
家庭生活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신 현 자* · 김 기 남**

청주시 봉명중학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A Study of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to
Home Life through Middle School Boys' Learning
of Home Economics.

Shin, Hyun-Ja* · Kim, Ki-Nam**

*Bong Meung Middle School in Cheong-J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learning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middle school boy's home life and to suggest the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through students' opinion of Home Economic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in Cheong-ju area using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487 boys who studied Home Economics (HE group) and 480 boys who studied Technique (T group) in middle school.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t-test and x^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to home life on the bas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me life; In urban area, the interests in health and the role of the consum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rural areas-on the bases of the standard of life, the middle class students had a higher interest in nutrition and food habits, the students whose father were engaged in special job had a higher interest in health and nutrition.

2.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between HE & groups;

In the field of food life, HE's knowledge about the six nutrients and the basic food groups and attitude toward buying food were higher than T's. In the field of family life and resources, HE and T accepted the importance of family life and the role of home as important, hoped to get psychological relax from home and to take the right sexual education. In the field of clothes life, HE and

T had the general tendency to have their clothes in proper manner and to select their clothes for themselves, but HE took a higher interest in clothes mending and the role of clothes.

3. The opinions on Home Economics;

HE answered that Home Economics was useful to them (more than 90% of HE) and that 57.1% of HE were interested in Home Economics. The order of interest among three fields were as follows: food life, clothes life, family life and resources. 71.9% of T hoped to take Home Economics course.

I. 序 論

급격한 과학技術 및 사회의 발전은 家族구조와 가정의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家族구조가 大家族에서 부부중심의 核家族으로 변화되면서, 家族구성원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와, 가정의 일이 부부와 그들의 자녀에 의해 수행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남성도 여성과 함께 가사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중시하던 전통적 가정의 기능은 기계생산으로 인한 소비자의 역할로 변화되었으며, 주택구조의 변화, 가사의 기계화, 일상용품의 상품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남성들도 쉽게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과 확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사회참여는 날이 갈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체의 추정에 따르면 1991년에는 전체 고용인구의 41.3%를 여성이 점유할 만큼 직업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¹⁾ 직업의 종류면에서도 전통적으로 性에 따라 구분되던 직종들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되면서 고정된 性의 편견이 무너지고 직업세계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²⁾

이상과 같은 家族과 사회의 변화는 그 동안 여학생에게만 家政教科를 가르쳐 온 전통적인 교육관에도 변화를 가져와, 남학생에게도 家政教科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다.³⁻⁴⁾ 그리하여 1987년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989년부터 『技術·家政』교과를 신설하여 남녀 학생 모두에게 性의 구분이 없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였다.⁵⁻⁶⁾

본 연구의 목적은 技術·家政教科를 통해 家政教科를 배운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技術教科를 이수해 家政教科를 배우지 않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家庭生活 內容중 食생활, 가족생활과 자원분야, 의생활분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비교하고 아울러 家政教科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가정교과의 교육성과를 알아보고 家政科教育의 발전에 기초가 될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II. 研究의 方法

1. 調査대상 및 資料수집

조사대상자는 청주시와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남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청주시와 청원군·증원군 지역에서 技術·家政教科를 통해 家政과목을 이수한 남학생 487명과 技術교과를 배워 家政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 480명으로서 총 967명이었다.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고 다른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표집 대상자는 인접 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1990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가정교과 이수 학생에게 487매, 가정교과 비이수 학생에게 480매를 배포하였고 회수한 것은 가정교과 이수학생용 452매(92.8%), 가정교과 비이수 학생용 448매(93.3%)였으며, 미비한 것은 자료처리시 제외하였다.

2. 測定度具

문헌연구를⁷⁻¹¹⁾ 통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家庭生活과 관련된분야(食생활, 가족생활과 자원, 의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학습후의 소감, 家政教科에 대한 기호도, 실생활에 도움이 큰 단원

순서, 학습상의 애로점, 남학생의 家政科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 8문항, 『식생활』단원에 대한 내용 13문항, 『가족생활과 자원』단원에 대한 내용 9문항, 『의생활』단원에 대한 내용 7문항, 家政教科에 관한 내용 5문항으로 총 42문항 이었다.

3. 資料處理 및 分析

본 자료는 spss package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研究對象者의 일반적 특성 8개 문항에 대한 분포와 家政教科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는 X^2 검증을 사용하여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3) 家政教科 이수 여부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X^2 검증을 하였는데 식생활분야에서의 차이는 t-test와 X^2 검증법을 가족생활과 자원분야, 의생활분야에서의 차이는 X^2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論議

1. 研究對象者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활수준면에서는 월 수입 50-79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 직업은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 유무면에서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이 더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중졸자와 고졸자가 많았고, 국졸이하의 학력자도 상당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가족형태면에서는 核家族이 擴大家族보다 더 많았고, 주거의 형태면에서는 한옥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표 2)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식생활분야에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시지역 학생이 높았으며 ($p<.05$), 家族生活과 자원분야에서 시지역 학생이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家庭環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p<.05$) 소비

자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p<.05$). 그러나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학생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생활수준별 차이를 보면, 생활수준이 중류인 경우에 건강과 식습관을 관련지어 생각하는 정도와 6대 영양소를 아는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p<.05$) 이러한 결과는 중류가정의 경우에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는 나영주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가정생활과 자원』분야 역시 중류가정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심리적 안식처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p<.05$), 청소년기를 일생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응답하고 있었다($P<.05$). 의생활분야에서는 의복의 표현기능에 대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착용자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반응이 높았고 ($p<.01$), 의복구입시의 증점사항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깔같은 외관에, 중류가정의 경우에는 실용성에 증점을 두어 유의차를 보였다($p<.01$).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에는 조리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p<.01$), 학력이 낮을수록 과일구입시 본인이 직접 고르는 비율이 높았다 ($p<.05$). 또한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소비자역할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p<.05$).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유무별 차이를 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비례적으로 높아 나영주¹²⁾의 研究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p<.05$). 그러나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p<.05$)과, 평소의 옷차림($p<.05$) 의복관리태도($p<.01$)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금전 사용 태도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즉,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 예산에 따른 支出生活을 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고, 주거형태는 과일구입 태도와 의복구입방법면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의 과일구입 태도 점수가 낮았고 의복 구입시에도 외관에 증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1) 研究對象者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집 단 N · %	가정교과 이 수		가정교과 비 이 수		계	
		N	%	N	%	N	%
지 역	시지역	100	24.1	146	34.4	246	29.3
	읍·면	315	75.9	278	65.6	593	70.7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생활수준 (월수입)	80만원이상	25	5.9	37	8.7	62	7.4
	50-79만원	218	52.6	250	59.0	468	55.7
	30-49만원	131	31.6	101	23.8	232	27.7
	30만원이하	41	9.9	36	8.5	77	9.2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아버지의 직업	전문기술직	20	4.8	30	7.1	50	5.9
	행정관리직	8	1.9	19	4.5	27	3.2
	사무직	45	10.9	79	18.6	124	14.8
	서비스업	55	13.3	63	14.9	118	14.1
	농·축산업	208	50.1	161	38.0	369	44.0
	제조업·공·광업	37	8.9	32	7.5	69	8.2
	기타(무직·노동)	42	9.1	40	9.4	82	9.8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 다	174	41.9	183	43.2	357	42.6
	없 다	241	58.1	241	56.8	482	57.4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아버지의 학력	대졸이상	23	5.5	55	13.0	78	9.3
	고 졸	110	26.5	128	30.2	238	28.4
	중 졸	123	29.7	111	26.2	234	27.9
	국졸이하	159	38.3	130	30.6	289	34.4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어머니의 학력	대 졸	9	2.2	14	3.3	23	2.7
	고 졸	56	13.5	105	24.8	161	19.2
	중 졸	154	37.1	134	31.6	288	34.3
	국졸이하	196	47.2	171	40.3	367	43.8
	계	415	100	424	100	839	100
가족 형태	핵 가족	320	77.1	350	82.5	670	79.9
	확대가족	95	22.9	74	17.5	169	20.1
	계	415	100	424	100	839	100
주거 의 형태	한옥	230	55.5	159	37.5	389	46.3
	절충식양옥	128	30.8	151	35.6	279	33.3
	연립주택	35	8.4	60	14.2	95	11.3
	아파트	22	5.3	54	12.7	76	9.1
	계	415	100	424	100	839	100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

구분	일반특성	지역	생활 수준	父의 학력	父의 직업	母의 학력	母의 직업유무	가족 형태	주거 형태
식생활 분야	영양·건강에 대한 관심도	*		*	***	*			
	평소의 식사태도								
	건강과 식습관의 관련정도		*						
	남학생의 영양학습 필요성								
	6대 영양소를 아는 정도		*	**	*				
	기초식품군을 아는 정도								
	조리방법에 대한 관심도				**				
	가공식품 구입태도				*				
	파일 구입태도				*				*
	남학생의 조리실습 참가								
	장래의 공동 식사준비								
	평소의 식생활 참여도								
가족생활원 분야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능		*						
	개인·국가발전의 기초요인								
	성격형성의 영향요인	*							
	청소년기의 중요성		*			*			
	성교육의 필요성	*							
	소비자의 역할	*			*				
의생활 분야	금전자원 사용태도						*		
	평소의 옷차림					*			
	의복의 표현기능		**						
	의복 선택 방법								
	의복 구입 방법		**						**
	의복 관리 태도					**			
	바느질 학습의 필요성								
한복 학습의 필요성									

* : p<0.05 ** : p<0.01 *** : p<0.001

3. 家政教科이수 여부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생활분야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 내용은 영양학습의 필요성, 6대 영양소와 기초식품군을 아는 정도, 식사구입 태도면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고, 家庭生活과 자원분야에서는 家庭環境의 중요성, 청소년기의 중요성, 소비자의 역할, 금전자원 태도면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생활분야에서는 의복의 표현기능, 의복의 구입방법, 의복관리 태도면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

가 있었다.

이상의 차이를 보인 내용들이 家政教科 이수의 효과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1〉와 〈표 2〉에 나온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와 비교를 해 본 결과, 우선 식생활 분야에서 차이를 보인 영양학습의 필요성과 기초식품군을 아는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으므로 〈표 2〉의 결과는 家政教科 이수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6대 영양소를 아는 정도는 생활수준, 부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표 1〉자료에 의하면 家政教科 비이수 집단의 생활수준과 부의 학력

(표 3) 가정교과 이수 및 비이수 집단간의 가정생활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

구 분	집 단	家政教科 이수 집단과 비이수 집단
식 생 활	영양·건강에 대한 관심도	
	평소의 식사태도	
	건강과 식습관의 관련정도	
	남학생의 영양학습 필요성	**
	6대영양소, 기초식품군을 아는 정도	***
분 야	조리방법에 대한 관심도	
	식품 구입태도	***
	식생활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족 생 활 원 인 과 분 야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능	
	개인·국가발전의 기초요인	
	가정환경의 중요성	**
	청소년기의 중요성	**
	성교육의 필요성	
	소비자의 역할	**
의 생 활 분 야	금전자원 사용태도	*
	평소의 옷차림	
	의복의 표현기능	**
	의복 선택 방법	
	의복 구입 방법	**
	의복 관리 태도	***
	바느질 학습의 필요성	
한복 학습의 필요성		

* : p<0.05

** : p<0.01

*** : p<0.001

이 이수집단에 비해 더 높으므로, 이것 또한 家政教科를 이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家族生活과 자원분야 및 의생활 분야에서도 家政教科 비이수 집단의 家庭環境이 더 좋고 시 지역 학생들의 더 많은 점등을 고려할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력보다는 家政教科를 이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된다.

家政教科 이수 여부에 따른 각 분야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분야

식생활 분야의 설문내용은 4단계 Likert 척도법에 의해 구성되었고, 자료처리시에는 바람직한 대담부터 4,3,2,1점으로 배점하여 합계점수를 구한 후 개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값을 t-test에 의해 집단간 유의차를 검증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간에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표 4>에서와 같이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p<.01), 영양에 대한 지식정도 (p<.001)와 식품의 구입태도 (p<0.01) 였는데 家政教科 이수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2) 家族生活과 자원분야(표 5)

家政教科 이수 그룹과 비이수 그룹간에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7문항중 4문항으로서 家庭環境의 중요성, 청소년기의 중요성, 소비자의 역할, 금전자원 사용태도 이었다. 家庭環境의 중요성에 있어서 47.3%의 학생들이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장기의 家庭環境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이 사춘기 이후의 교우관계(28.1%)로 나타났다. 특히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들이 성장기의 家庭環境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p<.

(표 4) 식생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t-test)

항 목	집 단 평 균·표준편차	가정교과 이수자 (N=415)		가정교과 비이수자 (N=424)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2.87	0.70	2.88	0.69	0.19
평소의 식사태도		2.54	0.89	2.53	0.94	0.15
건강과 식습관의 관련정도		2.78	0.80	2.78	0.76	0.04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습 필요성		3.43	0.73	3.30	0.69	2.62**
영양에 대한 지식정도		6.39	1.24	5.81	1.31	6.51***
음식의 재료 및 조리법에 대한 관심도		2.87	0.80	2.75	0.84	0.50
식품 구입 태도(가공식품·과일)		6.87	1.17	6.59	1.33	3.24***
식사준비의 참여도		9.08	1.71	8.97	1.78	0.82

* : P<0.05 ** : p<0.01 *** : p<0.001

01).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대부분(85.1%)의 학생들이 인간의 일생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청소년기로 답하였는데,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었다 (p<.01).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견해조사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묻은결과 家政教科 이수 학생은 80.7%가 비이수학생은 71.0%가 소비자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에 대답함으로써,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들이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금전자원 사용태도에 있어서는 44.7%의 학생들이 합리적인 예산과 그에 따른 지출 생활을 하겠다(40.9%)고 답하여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금전사용태도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家政教科 비이수 학생들중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학생도 8.3%나 되어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들의 태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 의생활분야(표 6)

의생활분야에 관한 7개 문항중 家政教科 이수 여부에 따른 그룹간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세가지로서, 의복의 표현기능과 의복구입방법, 의복관리태도였다. 의복의 표현기능에 대하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은 착용자의 내면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에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여 두 집단간에 유의차를 보였다(p<.01).

의복구입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86.7%)이 자신

의 옷을 고르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었으며, 의복구입시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은 실용성에, 家政教科 비이수 학생은 모양, 색깔 같은 외관에 더 높은 중점을 두어 그룹간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의복관리에 대한 태도는 家政教科 이수 학생(78.8%)이 비이수 학생(60.9%)보다 훨씬 적극적인 수선택태도를 보여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p<.001).

4. 家政教科에 대한 의견조사 (표 7)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식생활』단원에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습소감을 묻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60.2%로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1.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91.3%)의 학생들이 영양소와 건강에 대해 알게되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여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습이 남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의 유형과 기능을 학습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래에 원하는 가족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 단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은 핵가족으로 30.8%였으나, 擴大家族과 直系家族을 합한 수치는 52.6%로서 반수 이상의 학생이 大家族 형태를 희망했다. 이는 남학생이라는 性的 특징과 함께 가부장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전통적 사고가 아직도 남학생 사이에 관습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증거라고 생각되며 擴大家族 형태에서 核家族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표 1. 일반 특성 조사, 核家族 : 79.9%)과 매우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가족생활과 자원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집 단 N (%)	가정교과 이수 N (%)	가정교과 비이수 N (%)	계 N (%)
성격형성의 요인	성장기의 가정환경		219(52.8)	178(42.0)	397(47.3)
	사춘기이후 교우관계		102(24.6)	134(31.5)	236(28.1)
	학교나 주변환경		84(20.2)	91(21.5)	175(20.9)
	교사나 서적		10(2.4)	21(5.0)	31(3.7)
	계		415(100)	424(100)	839(100)
		$x^2=11.17$	$df=3$	$p<0.01$	
일생중가장 중요한시기	아동기(국민학교)		25(6.0)	38(9.0)	63(7.5)
	청소년기(중학교)		371(89.4)	343(80.9)	714(85.1)
	성인기(20-40세)		19(4.6)	43(10.1)	62(7.4)
	계		415(100)	424(100)	839(100)
		$x^2=13.51$	$df=3$	$p<0.01$	
소비자의 역할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다		335(80.7)	301(71.0)	636(75.8)
	소비자는 권리만 있다		40(9.7)	47(11.1)	87(10.4)
	책임과 권리는 기업가에게만 있다		18(4.3)	25(5.9)	43(5.1)
	생각해 본 적 없다		22(5.3)	51(12.0)	73(8.7)
	계		415(100)	424(100)	839(100)
		$x^2=14.57$	$df=3$	$p<0.01$	
금전자원 사용태도	예산에 따른 지출생활		204(49.2)	171(40.3)	375(44.7)
	현재물 희생한 지출생활		164(39.5)	179(42.2)	343(40.9)
	개인의 욕구를 중요시함		25(6.0)	39(9.2)	64(7.6)
	생각해 본 일 없음		22(5.3)	35(8.3)	57(6.8)
	계		415(100)	424(100)	839(100)
		$x^2=9.00$	$df=3$	$p<0.05$	

(표 6) 의생활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집 단 N (%)	가정교과 이수 N (%)	가정교과 비이수 N (%)	계 N (%)
의복의 표기 현능	입은 사람의 모든것 표현		241(58.1)	193(45.6)	434(51.7)
	대부분 내면을 표현		120(28.9)	149(35.1)	269(32.1)
	착용자의 내면과 별로 관계 없음		45(10.8)	71(16.7)	116(13.8)
	착용자의 내면과 전혀관계 없음		9(2.2)	11(2.6)	20(2.4)
	계		415(100)	424(100)	839(100)
		$x^2=14.16$	$df=3$	$p<0.01$	
의복구입시의 중점사항	실용성		192(46.3)	141(33.3)	333(39.7)
	외관(모양·색깔)		144(34.7)	191(45.0)	335(39.9)
	재료(섬유혼용율)		29(7.0)	31(7.3)	60(7.2)
	특정상표·메이커		50(12.0)	61(14.4)	111(13.2)
	계		415(100)	424(100)	839(100)
		$x^2=14.17$	$df=3$	$p<0.01$	
의복과리태도	발견즉시 알맞은 처리		114(27.5)	93(21.9)	207(24.7)
	가능한 한 알맞은 수선		213(51.3)	165(39.0)	378(45.0)
	귀가시까지 그대로 입음		73(17.6)	146(34.4)	219(26.1)
	별로 신경쓰지 않음		15(3.6)	20(4.7)	35(4.2)
	계		415(100)	424(100)	839(100)
		$x^2=33.25$	$df=3$	$p<0.001$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자원활용』 단원 중에서 청소년기의 특징을 학습한 후의 소감을 묻은 결과 반수 이상 (58.5%)의 학생들이 성별특징을 새롭게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도움이 안 되었다』는 7.3%로써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특징』 학습은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성과를 견우었다고 생각된다.

技術·家政教科를 통해 家政科를 이수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家政教科에 대한 기호도를 묻은 결과는 반수이상 (57.1%)의 학생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으로 그저 그렇다가 39.0%였으며 싫어한다는 3.9%로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로 보아 家政教科에 대한 남학생의 수용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家政科분야 학습 후 실생활에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는 단원의 순서는 식생활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의생활로 29.4%, 가장 낮은 비율이 가족생활과 자원으로 25.8%였다.

家政教科를 이수한 남학생들은 『技術·家政』 교과과는 신설과목을 통해 학습하므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로 家政教科 학습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 가장 높은 것이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 技術教科를 배운 학생들보다 불리하다는 것(41.0%) 이었는데, 현행 입시제도에서 技術·家政교과를 배운 학생은 技術과 家政 두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양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또한 중 3때 교과 선택시 (工業(남), 家事(여)) 科目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제로 입시에 불리한다. 다음이 실습교재 및 설비부족을 들고 있고(23.4%), 남녀가 한 교실서 학습하기 때문에 불편하다(13.2%)로 응답했다. 가장 낮은 비율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9.4%)을 들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교사에게 질문했을 때는 다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技術과목만을 배우고 있어 家政教科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家政科분야 학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1.9%의 학생이 家政教科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김혜영의 研究(1984)에서 家政科 교육이 남학생에게 필요하다는 반응이 1976년도 조사에서는 57.8%, 1984년도 조사에서는 61.6%로 나타난것으로 보아 남학생들

〈표 7〉 家政教科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구분	집 단 N · %	가정교과 이수학생	
		N	%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습 소감	많은 도움이 됨	250	60.2
	약간 도움이 됨	129	31.1
	별로 도움이 안됨	28	6.8
	전혀 도움이 안됨	8	1.9
	계	415	100.0
장래에 원하는 유형	핵 가족	128	30.8
	확대 가족	104	25.1
	직계가족	114	27.5
	형편에 따라	69	16.6
	계	415	100.0
청소년기 의 특징 학습 소감	많은 도움이 됨	243	58.5
	약간 도움이 됨	142	34.2
	별로 도움이 안됨	121	5.1
	전혀 도움이 안됨	9	2.2
	계	415	100.0
가정교과 에 대 한 기 호 도	매우 좋아한다	35	8.4
	좋아한다	202	48.7
	보통이다	162	39.0
	싫어한다	16	3.9
	계	415	100.0
실생활 에 대 한 도 움	우리의 식생활	186	44.8
	청소년기의 생활	122	29.4
	가정생활과 자원	107	25.8
	계	415	100.0
가정교과 로 사 학 습	입시제도에 불리	170	41.0
	시간적으로 부족	54	13.0
	실습교재 및 설비부족	97	23.4
	교사의 전문성 부족	39	9.4
	남녀가 한교실서 학습하는 점	55	13.2
계	415	100.0	
* 학습 의 필 요 성	필요하지 않다	45	10.6
	필요하며 배우기를 희망	305	71.9
	잘 모르겠다	74	17.5
	계	415	100.0

*대상자 : 가정교과 비이수 남학생

이 점점 家政科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結論 및 提言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을 변인으로 보았을 때 家庭生活 분야와 관련된 인식에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차에 있어서 시 지역 학생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家庭環境, 소비자의 역할을 더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류 가정이 건강과 식습관을 관련짓는 정도가 높았으며, 의복 구입시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 구입시 실용성보다 외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에 부모로부터 간접적인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평소의 옷차림과 의복관리 태도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예산에 따른 支出生活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과일 구입 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의복 구입시 외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았는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거의 형태이므로 이웃과 비교되거나 영향을 받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외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2) 家政敎科 이수 여부에 따른 家庭生活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

『식생활』 분야에 있어서 6대영양소와 기초식품군에 대해 아는 정도는 家政敎科를 이수한 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p < 0.001$), 식품구입에 대한 태도는 家政敎科를 이수한 집단이 더 올바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정생활과 자원』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는 家政生活的 중요성과 家庭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家庭의 기능은 전통적 기능보다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하며, 대부분 (86.9%)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性教育을 원하고 있었다.

『의생활』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부분 (85.4%)의 남학생들이 평소의 옷차림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복 구입시엔 자신이 직접 고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家政敎科를 이수한 남학생이 의복의 표현기능과 수선택도에 있어 더 좋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일반적인 특성은 부모의 학력과 생활수준 이외는 공통적인 변인으로서 뚜렷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학습효과의 결과에 의해 유의차가 확실히 나타남으로써 남학생의 家政敎科 학습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家庭敎科에 대한 의견조사

家政敎科를 이수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家政敎科에 대한 단원별 학습 소감을 조사한 결과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좋은 학습 성과를 견우었다고 생각되며, 家政敎科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수의 학생(57.1%)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政敎科 학습중 흥미 있었던 단원의 순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원의 순서는 같았으며 식생활(44.8%), 의생활(29.4%), 가정생활과 자원(25.8%) 순이었다.

남학생의 家政敎科 학습시 인식된 애로사항 중 첫째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技術敎科만 이수한 학생보다 불리하다는 점이었으며 실습교재 및 설비 부족,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등을 들고 있었다.

家政敎科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의 71.9%가 家政敎科가 남학생에게도 필요하며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학교단위의 필수과목 선택과 기술·家政敎科的 시행상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에서 남학생의 家政敎科 이수 기회를 현실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본 研究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의 공동운영체인 원만한 家庭生活을 위해 性的 역할의 구분이 아닌 인간역할에 중점을 둔 家政敎科로서, 전체 남학생에게 이수시키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다수(71.9%)의 남학생이 家政敎科 학습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수 기회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선택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技術·家政敎科는 학습지도상 어려움이 많아 학교현장에서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교과로서 家政科의 독자적인 위치 수립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6.
2. 윤인경, 중학교 남녀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 대한가정학회지, 1987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인용, 1987.
3. 한국여성개발원, 남녀차별개선지침, 한국여성개발원, 1985.
4. 한명희, 교육이념과 성의 구상, 제3차 여성학회 연차대회, 1987.
5. 문교부, 중학교 실업, 가정교육과정해설, 1989.
6.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기술·가정 교사용지도서, 1989.
7. 고현숙, 가정과교육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교육 학회지 1(1): 19-31, 1989.
8. 김근자,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9. 김혜영, 가정과 교육대상의 확대를 위한 남학생의 의견조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0. 문옥현,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과에의 이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 이연희, 가정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가정과 교육의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나영주, 남·여 중학생의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도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3. 김정숙, 중학교 가정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4. 김정자,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 역할 연구, 여성연구 제14호, 1987.
15. 박정순, 가정과 교육의 방향의 고찰, 인천교육대학 논문집: 17, 1983.
16. 배 한, 학습자 변인 및 가정 변인과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과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7. 신상옥, 가정교육 연구의 접근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4(2): 165-167, 1987.
18. 신상옥, 일선교사를 통하여 본 가정과 교육,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대학보 제21집, 1987.
19. 신세호, 한국인의 남녀 역할관, 한국교육개발원, 1986.
20. 유길자, 중학교 신입생의 학업성취 예언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1. 윤석우, 중학교 기술·공업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2. 정숙희, 가정학의 방향모색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23. 주정숙·손원교,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효율화 방안,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20집:141-174, 1982.
24. 채옥희, 가정과 학습내용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25.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대의 사회발전과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2.